

지하시설물 DB구축 재난 대비

무주군, 상·하수·전기·가스 등 전산화 추진

무주군이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도로와 상·하수·전기·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의 DB를 구축해 전자 지도로 만드는 작업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 총 53.54km(도

로 23.7, 상수도 17.82, 하수도 12.02 km)에 대한 DB(Data Base)를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다.

올해는 총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무주읍 읍내리 일원 53.62km 구간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군은 구축된 지하시설물 DB(Data Base)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해 도로점용이나 굴착사업 등에 활용

하며 각종 재난, 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담당은 "최근 찾아지고 있는 도로굴착 사업과 싱크 홀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정보 구축과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지하 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정확한 자료들이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중학생 인문학 교육 '호응'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을 키우는 청소년 인문학 교육'을 실시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장수중·번암중·천천중학교에서 진행 됐으며, 나다교육공동체 변중용 감사의 '우리는 왜 꿈꾸지 않는가?' 인문학 강연을 시작으로 공감토론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권력과 미디어의 블랙홀, 농산촌 청소년 진로진학' 등의 강연이 실시됐다.

특히 인문철학, 정치사회, 언론 등 각 영역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 경험을 통해 자기의 진로와 학습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 참여 청소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익숙한 소재로부터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강의부터 청소년에게 질문과 토론을 통해 공감 할 수 있는 참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을 키우는 청소년 인문학 교육'을 실시했다.

여수업 등의 다양한 방식의 인문학교육으로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지역의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발굴·운영을 통해 청소년역량강화증진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성수 원구신마을 생활여건 개조 공모 선정

사업비 16억 확보

진안군은 20일 성수면 원구신마을이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원구신마을 노후권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취약한 마을을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 의견을 수렴 및 회의를 통해 예비계획 수립을 하는 등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과 행정이 하나 되어 이룬 성과다.

특히 이항로 군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한 결과 이원중 당시 지역발전위원장(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신리 현장을 방문할 때 직접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끌어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 44개 지구, 총 717억원의 사업비로 각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안전, 생활·위생, 주거환경개선, 주택정비, 소득창출' 등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안전 등의 문제되는 농촌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하는 사업이다.

취약지역사업은 국비 70%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지원 비율이 높고, 농촌지역 실정에 맞아 지자체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사업으로 2015년 시범사업인 동향면 상·하양지마을 37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신규 사업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선정된 사업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완주보건소, '치매 존' 운영 '우수'

복지부 장관 표창... 인지기능 향상·가족부담 경감 기여

완주군보건소가 제8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2016년 치매사업 우수프로그램 추진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17개 시·도 및 25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성과 대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시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대회를 통하여 지자체 보건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지자체 포상 및 사례공유 등을 통한 보건사업 인식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 대회에서 완주군은 재가 경도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에 대한 경증 치매환자 놀이방(치매존)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에 영광을 안았다.

경증치매환자 놀이방(치매존) 운영은 재가 경도치매환자 및 인지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주간 돌봄서비스(한방진료, 물리치료, 구강관리, 이·미용서비스 및 중식제공 등)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문제해결능력 훈련, 회상, 심리 및 놀이치료, 작업치료, 치매 예방체조 등)운영을 통하여 치매환자 인지기능향상 및 치매가족의 부담 부담감 경감에 기여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치매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매로부터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치매 예방 및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특별블로그

무진장소방서, 황조롱이 구조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 119구조대는 20일 오전 8시경 천연기념물 제328-8호 황조롱이를 구조했다.

이날 장계면 장계리 전모씨(32세)가 탈진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는 부상을 입어 날지 못하고 있는 황조롱이를 제2차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류 조치후 구조장에 넣어 뜬봉샘 생태공원에 인계했다.

황조롱이가 먹이가 부족하여 민가까지 내려와 먹이활동을 하던 중 이물질로 날개의 깃털이 손상되어 추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경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19일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무주군수, 무주교육지원청장, 유관기관단체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는 무주군수를 위원장으로 사기기관단체장을 회원으로 2회 개최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경찰서 주요추진업무 설명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따른 방법용 CCTV에 대한 성능향상 방안의 안전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무주군에서 적극 지원해 줄 방침이다.

한도연 서장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무주치안을 위해 사기기관단체장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읍면 복지 허브화 본격

민관 실무자 멘토-멘티 결연

완주군이 읍면 복지허브화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지런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군은 읍면 복지허브화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관 및 읍면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최초로 멘토·멘티 결연식을 갖고 본격적인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번 멘토링은 전 읍면 확대에 대비해 사회복지기관 현장전문가와 행정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복지허브화 사업이 신속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는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총 5개 영역별 전문기관으로 19개 기관, 실무자 31명이며, 멘티는 읍면 복지담당자 13명으로 경험과 노하우 많은 민간전문기관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멘토, 멘티간의 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해 3개 권역에서 통합사례회의, 수퍼비전, 케이스 컨퍼런스 등 복지허브화 확대를 위한 실무차원의 멘토링을 진행해 성과가 우수한 멘토·멘티에게는 연말 포상도 계획하고 있다.

멘토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차민정 국장은 "행정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완주군 복지를 위한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ICT 활용 인삼·홍삼산업 박차

국가 공모사업 확정

진안군은 인삼농업의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에서의 탈피하고 진안홍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6 농식품 ICT 융복합'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노지 인삼재배를 위한 U-ICT 무인방제시스템'과 '진안홍삼 스마트 이력관리시스템' 등 2건이 확정됨에 따라 인삼 및 홍삼산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진안군은 기존에 시설하우스쪽에만 사업이 지원되어 아쉬움을 가지고 있

던 중 기획 공모로 모델 발굴을 위해 노지 발자목까지 공모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지난 4월 신청한 것으로 전액 군비로 시행하려는 ICT를 활용한 인삼 및 홍삼산업에 대해 총 사업비 7억6,000만원 중 국비 3억4,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전체 사업비 중 40%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룬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U-ICT 무인방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노동인구의 노령화에 대응해 인삼 경작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쫄 '우리 동네 바로알기' 대회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지난 19일 오후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각 파출소를 대상으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관내 과파 및 적응을 위해 '우리 동네 바로알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동네 바로알기란, 파출소 직원들이 개인별로 담당하는 지역을 세심히 순찰하여 주요건물(은행, 금은방, 편의점), 범죄 취약지 및 주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관내요도에 표시하여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접촉형 문안 순찰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치안 구현을 위한 방식으로 한층 발전시켰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사업과
063-430-2951